

반란의 역사를 넘어 세계의 역사로



- 전시기간 2016년 6월 14일(화) ~ 11월 10일(목)
- 전시장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실 (1층)
- 전시주제 반란의 역사를 넘어, 세계의 역사로
- 전시구성
 - 1파트 : 1894년, 보국안민·척양척왜의 기록
 - 2파트 : 동학농민혁명을 기록한 다섯 개의 시선
 - 3파트 :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기록

녹두꽃

포토 토크
제3기 임원 임명
및 상견례

취임 인터뷰
이승우 이사장

재단 포커스
주요사업 소개

기획① 명사대담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기획② 지역대담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를 찾아서

참여자 유족 인터뷰
이원하, 참여자 이승원의 증손자

지역단체 포커스
지역단체 행사



갑오동학혁명의 노래

신석정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짐을 올려라 죽창도 들었다
 이젠 앞으로 앞으로 나가자
 놀려 살던 농민들이 외치던 소리
 우리들의 가슴에 어렵히 탄다
 갑오동학혁명의 뜨거운 불길
 받들고 나아가자 겨레의 햇불
 오늘도 내일도 더운 피 되어
 태양과 더불어 길이 빛내자

이 시(詩)는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창작·발표된 한국문단의 두 번째 작품으로 1963년 9월 29일 전북일보(日刊)에 게재되었다. 1963년 10월 3일 정읍 황토현 마루에서 열린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제막식을 나흘 앞두고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발표된 이 시는 혁명정신 계승과 그 정신의 현재화를 추구하고 있다. 작곡가 김성태가 노래로 만들어 기념탑 제막식 때 불리기도 했다.

신석정 申錫正 1907~1974. 시인.

전북 부안 출생으로 본명은 석정(錫正)이다. 1924년 조선일보에 「기우는 해」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 『촛불』(1939), 『슬픈 목가(牧歌)』(1947), 『방화』(1956), 『산의 서곡』(1967), 『대바람 소리』(1970) 등이 있다. // 『황토현에 부치는 노래』, 창작과비평사, 1993.

【편집자주】

〈시로 읽는 동학농민혁명〉 1894년 이후 한국문단에 창작·발표된 시 작품들 중에서 연대기별 대표성을 지닌 작품을 소개한다.

2016 | 여름 | 24호

녹두꽃



COVER STORY

갑오동학혁명기념비

임실군 운암면 생암리 운암초등학교 정문 옆에 서 있는 기념시설물. 기미삼일운동기념비(좌측), 갑오동학혁명기념비(중앙), 무인멸왜운동기념비(우측)로 구성되어 있다. 흔히 '삼대혁명기념비'라 부르기도 한다.



02 시로 읽는 동학농민혁명
 신석정, 갑오동학혁명의 노래

04 포토 토픽
 제3기 임원 임명 및 상견례

06 취임 인터뷰
 이승우 이사장

10 재단 포커스
 이사회 개최, 주요사업 안내, 재단소식

13 기획① 명사대담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18 참여자 유족 인터뷰
 이원하, 참여자 이승원의 증손자

22 유적지 탐방
 전라좌도, 임실지역 유적지를 찾아서

28 파랑새 소식
 기념관 방문단체

35 기획② 지역대담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를 찾아서

40 지역단체 포커스
 지역단체 행사

45 보도기사 색인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47 이 계절의 책
 『전봉준, 혁명의 기록』, 이이화

발행일 2016년 7월 1일 | 발행인 이승우 |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소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 전화 063.538.2894 | 팩스 063.538.2893
 이메일 1894@1894.or.kr | 홈페이지 www.1894.or.kr | 제작 홍디자인

제3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 감사 임명



지난 4월 19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과 감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이사장은 이승우 군장대 총장, 감사는 권상호 공인회계사가 각각 임명되었다. 이승우 이사장은 행정고시(23회)로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장, 전북도 기획관리실장, 월드컵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운영국장, 전북도 정부부지사, 중앙공무원교육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권상호 감사는 태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한국콘텐츠 진흥원 글로벌애니메이션 프로젝트 발굴 공모사업 선정 3차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제3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임원 상견례



4월 26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3기 임원 상견례가 열렸다. 신임 임원소개에 이어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주요현안 등에 대한 업무현황보고,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전시유물 관람 등으로 진행되었다. 신임 임원진은 이승우 이사장, 권상호 감사를 비롯하여 이사 구왕회(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동길(사단법인 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 고문), 김양식(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연구소장), 문영호(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정책관), 박종원(아시아예술교육기관연맹 회장), 배항섭(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이기곤(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전해철(사단법인 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주성혜(한국예술교육진흥원장), 최금주(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무처장) 등 11명으로 구성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추구한 혁명

이승우 이사장

Q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제3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사장을 맡게 된 특별한 인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3기 이사장을 맡게 된 이승우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전라북도의 소중한 역사적 전통이자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전적지에 동학농민혁명 교육관과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었는데 그 때 전라북도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업추진에 일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인연 등이 기념재단 이사장 취임에 일정하게 작용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중세문명과 근대문명, 서양문명과 동양문명이 충돌하던 19세기말 우리전북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전개된 일대 사변이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는 중세 신분제사회를 극복하고 근대 평등사회를 지향했다는 점과 일제를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국권침탈에 맞서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근대문명의 세계사적 확장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한국사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사적 차원에서도 그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동학농민혁명은 오랫동안 그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었지요?

A 네, 그렇습니다. 동학농민군은 반봉건이라는 기치를 들고 고부농민봉기를 도화선으로 무장에서 포고문을 공포한 후 북상하여 고부관아 재점령, 백산대회를 열어 부대로서의 대오를 정비하고 정읍 황토현과 전남 장성 황룡강에서 전라감영군과 서울에서 파견된 경군(京軍)을 차례로 격파한 후 파죽지세로 제1차 점령목표였던 전라도 수부 전주성을 함락시켰지요. 조선 건국자의 본향이자 풍부한 물산의 집결지로 조선정부 조세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던 전주성이 함락되자 조선정부는 청나라에게 농민군 진압을 위한 군대파병을 요청하지요. 그러자 일본도 자국민 보호 등을 명분으로 군대를 파병하지요.

이처럼 국내외 정치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조선정부는 초토사 홍계훈을 통해 동학농민군과 협상을 추진하게 되지요. 청나라와 일본군을 조선에서 철병시킬 명분을 위해 동학농민군에게 전주성을 비워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동학농민군은 외국군대 철병을 위해 구국의 결단으로 폐정개혁 27개조를 국왕에게 보고할 것과 농민군이 해산할 때 신변보장을 약속받고 이른바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전주성에서 물러나오게 되지요.

그러나 조선을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삼고자 조선에 진출한 일본군은 조선정부의 철병 요구에 응하기는커녕 도리어 갑오년 6월 21일 경복궁 무단점령, 친일내각 수립, 청일전쟁 도발 등으로 동아시아 정치정세를 격동시켰습니다. 이에,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을 내쫓고자 9월초 반일항쟁의 기치를 들고 삼례에서 제2차 봉기를 단행, 서울을 향해 진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충남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을 맞아 전투를 벌였으나 근대적인 신무기를 당해내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지요.

이렇게 동학농민혁명이 미완의 혁명으로 막을 내린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36년, 해방 후 민족내부의 극심한 좌우대립, 민족분단, 한국전쟁 등으로 이어지면서 어둠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낡은 중세봉건사회를 극복하고 근대적인 평등을 지향함과 동시에 국권을 유린하던 일제에 맞서 나라와 민족의安危를 지키고자 했던 동학농민군의 구국애민 정신은 반란사건으로 치부된 채 역사의 뒷안길에 버려져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Q 기념재단은 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요?

A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동학농민혁명은 100년 가까이 왜곡과 축소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스럽게 지난 1994년 동학농민혁명 1백주년을 전후하여 전국 각지에서 기념사업단체가 창립되어 왜곡되고 축소된 채 역사의 뒀안길에 버려진 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복원시키고자 노력했고, 그 결실로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특별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으로 2010년 2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기념재단은 특별법에 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념관·기념탑 및 기념시설물 건립, 학술연구 및 교류, 유적지 정비, 참여자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에 관한 제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Q 제3기 기념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2010년 설립된 기념재단은 올해 6년째를 맞았습니다. 제1기와 제2기 기념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께서 기념사업의 초석을 놓으시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이분들이

이루어놓은 기반 위에서 기념재단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구상하고, 이를 구현해야할 시기라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념재단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전망 모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념재단 1기와 2기에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에 힘을 기울여나갈 생각입니다. 그 첫 번째로 정읍 덕천면 동학로 일대 약 10만평 부지에 조성될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념사업의 새로운 지평 모색은 물론이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 추구의 초석이 될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제정하는 사업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세계화 추구에 기여할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힘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정신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아쉽습니다. 후손들에게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A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발원하여 전국으로, 동아시아로 그 영향력이 확장된 일대 사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인식의 폭과 깊이를 더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정신을 알리는 기념, 홍보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특별법에 의거하여 기념재단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근대 민주주의의 뿌리인 [사람이 하늘이다]는 차원 높은 인본주의 정신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가겠습니다.

Q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A 동학농민혁명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추구한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오선열들의 뜻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들과 서로 힘을 합하여 그동안 이루어진 정신선양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동학농민혁명 세계화에 힘을 기울여 프랑스혁명, 독일농민혁명, 중국태평천국운동 등 세계 근대혁명과 어깨를 견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기념사업들을 힘 있게 펼쳐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호 [녹두칼럼]은 제3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승우 이사장 인터뷰로 대체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기 제11차 이사회 개최

2016년 4월 14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기 제11차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제3기 기념재단 이사장 및 감사추천(안), 임원선임(안) 등이 논의, 의결되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특별전 '반란의 역사를 넘어, 세계의 역사로'

지난 6월 14일(화)부터 '반란의 역사를 넘어, 세계의 역사로'라는 주제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특별전이 마련되었다. 이번 전시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차원에서 기획되었다. 특별전은 [1894년, 보국안민·척양척왜의 기록] [동학농민혁명을 기록한 다섯 개의 시선]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기록]으로 구성하였다.



2016년 제1차 동학농민혁명 포럼 지역모임

충북 보은군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일원에서 6월 3일~4일 2016년 [제1차 동학농민혁명 포럼 지역모임]이 열렸다. 포럼 회원 및 관련단체 임원 등 총 25명이 참가한 이날 모임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의 전국화 기반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튿날 참가자들은 동학농민혁명 보은 집회 터, 북실(종곡리)전투지, 보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등을 답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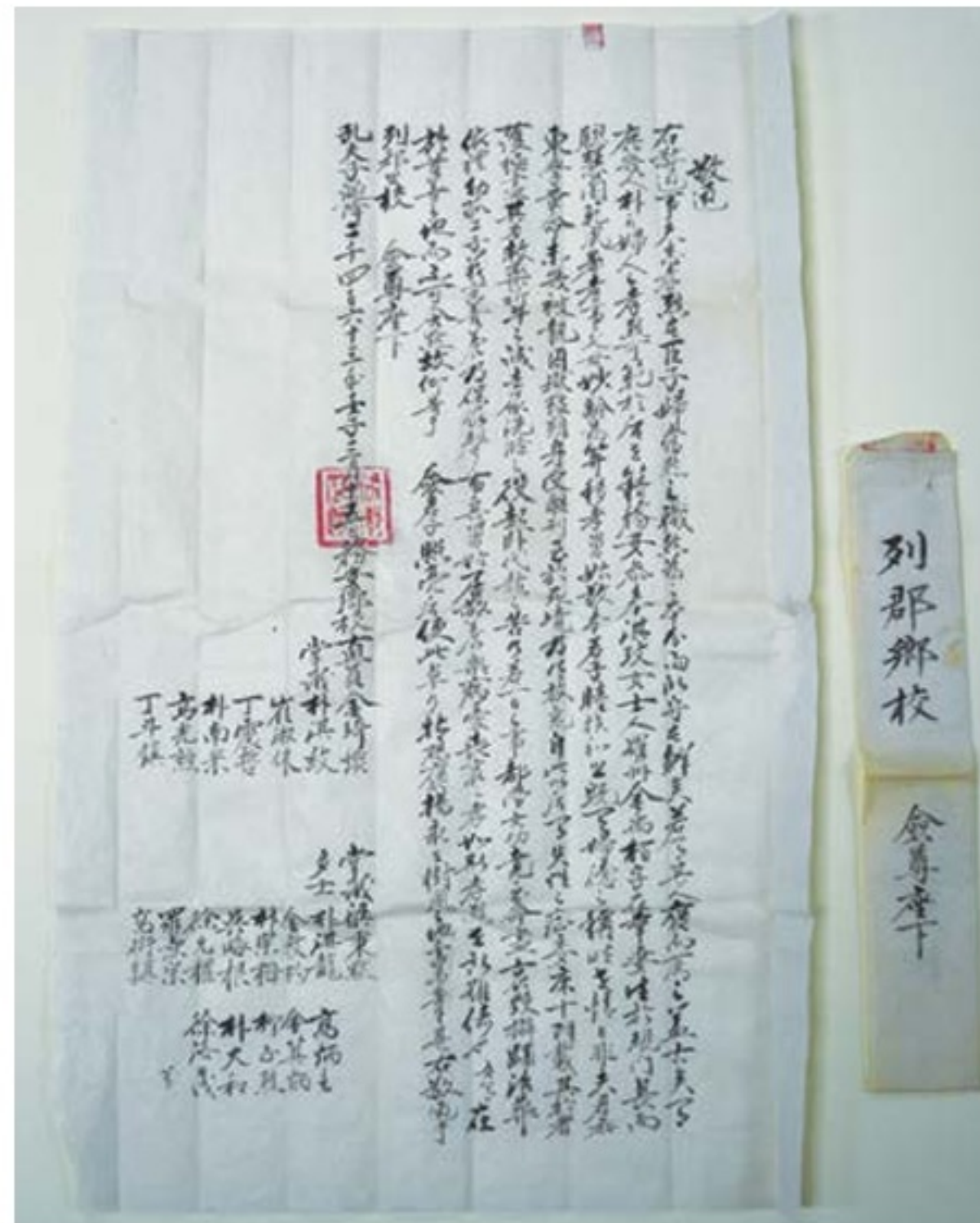


기념재단 유물 및 도서 기증

•유물기증

김우백 증손인 김정완氏, 기념재단에 「김우백 경통」기증.

기증한 유물은 1912년에 제작된 것으로 김우백(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부인 박씨가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한 것을 칭송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경통 내용에 '동학혁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사료와 유물로서의 가치가 높다.



•도서기증

박영재 전 연세대/중국 연변대 역사학 교수, 기념재단에 160권 관련도서 기증.

기증한 도서는 한국도서 14권, 서양도서 21권, 중국도서 74권(『中日戦争』 전12권, 1989, 『翁同龢傳』, 2000), 일본도서 51권(『伊藤博文關係文書』 전7권, 1973, 『東アツア史としての日清戦争』, 1998) 등이다.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희귀본으로 청일전쟁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중국과 일본 측의 인식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자료들이다.



“우리 아이들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나면 한 개인의 역사성과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전과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달라진 시각은 올바른 삶과 성숙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해 가는데 큰 원동력이 되리라 봅니다.”

”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문병학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대담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위해 애쓰시는 교육감님께서 아이들을 무지무지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아이들만 보면 이내 봄꽃처럼 환해진다고 하시는데, 아이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지요?

김승환 네, 아이들을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집니다.(웃음) 아이들은 사람이나 사물을 대할 때 머리로 대하는 게 아니고 가슴과 몸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배움도 몸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고요.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어른들은 머리로 배우지만 아이들은 몸으로 배운다고 하잖아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오는 아이들을 대하면 술한 이해타산 등에 찌든 관념적인 사고체계가 순식간에 무장해제 되어 아이들의 순수이성에 동화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과 코드가 비슷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웃음) 실제로 정신의학적으로 아이들에게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에너지가 나온답니다. 교육감 업무를 시작했던 1기 초반기에는 복잡한 일들과 힘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육 일선현장에 나가면 힘들고 복잡한 여러 일로 지친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신기하게도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구요. 처음에는 감성적으로 느껴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젠가 정신의학 전문가를 만난 자리에서 제가 느낀 현상을 설명했더니 “우연한 현상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서 상처를 치유하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은 정신의학적으로 그 근거가 규명된 것입니다.”라고 말하더군요. 누구나 젊은 시절에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회사나 밖에서 이런저런 일에 치여 심신이 고단한 상태로 귀가했을 때 아이가 달려오면서 안기는 순간 모든 게 풀리잖아요? 그게 다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더라구요.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은 미스터리 같아요. 아이들 한명 한명이 정말 말 그대로 신비로운 존재라고 생각해요. 아프리카에는 ‘아이들은 신이 내린 선물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와 구성원들에게 신이 보내주신 축복인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에 대한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해나가면서 행복했으면 해요.

문병학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어떤 점을 중점에 두고 계시는지요?

김승환 최근 「마흔 역사를 알아야 할 시간」(백승중)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인물들을 소개하는

이 책에 ‘이순신 편’이 있습니다. 작가가 “이순신의 가슴 속에는 달빛만 보아도 잠을 못 이루는 섬세한 시인이 살고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겨졌어요. 것처럼 섬세한 심성을 지녔기 때문에 험악한 전쟁터 속에서도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지도력이 나왔구나 생각되면서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면모에 더할 나위 없는 친근함이 느껴지더군요. 그 섬세한 심성, 그 심성이 곧 아이들의 마음 즉 천심(天心)이 아닐까요?

저는, 아이들의 마음인 천심, 하늘의 마음을 구속하지 않는 아이들의 영혼이 자유롭게 날개를 펼칠 수 있으면서도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학교’하면 떠올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아이들의 순수한 본마음, 천심, 하늘의 마음이 활짝 꽃피나는 곳으로 학교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취임한 뒤 줄곧 <학교 바꾸기>에 힘을 기울여왔어요. 그 구체적인 모습을 혁신 학교, 농어촌학교 희망찾기, 학생인권조례, 학교자치, 초등성장평가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교사·학부모·지역사회 등에서 여러 분들이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학교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문병학 동학농민혁명은 중세사회를 마감 짓고 만민평등을 추구한, 우리나라 근대사의 첫새벽을 연 민주주의 시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한 세기 동안 반란사건으로 왜곡된 채 역사의 뒤편길에 버려졌다가 110년이 지난 뒤에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2004년)이 제정되어 그 명예가 회복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복권이 이루어진 만큼 갑오선열들의 구국애민 정신을 오늘 우리 삶에 되살리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동학농민혁명 보조교재](2014)를 편찬하셨는데, 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환 동학농민혁명 보조교재를 만든 것에는 제 개인적인 연원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헌법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강조했던 말이 ‘법학도가 법학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법학을 공부하려면 문학·역사·경제학 등도 그 깊이를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곤 했어요. 그런데 교육감이 되어서 살펴보니 역사교육에 대한 집중도가 생각보다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여기·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기 지역의 역사, 그리고 가까운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잘 알 수 있도록 역사 보조교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작업으로 추진한 것이 동학농민혁명 보조교재 편찬사업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지역의 역사, 그리고 세 번째 전라북도 지역의 근·현대인물사 편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학 동학농민혁명군이 내세웠던 “사람이 하늘이다”는 차원 높은 인본주의 정신을 우리지역 청소년들에게 잘 교육되었으면 합니다. 나아가 전라북도를 넘어 그 숭고한 정신이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시도교육청과 동학농민혁명 역사교육 연계의 필요성도 있을 듯 한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환 강원, 세종, 광주, 전북 네 개의 시도교육청에서 교재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도 있고, 각 지역의 역사교재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면 다섯 권을 편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작업을 통해서 다른 시도의 학생들도 교재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지요. 혹여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동학농민혁명 보조교재를 편찬하려고 나설 경우 우리 전북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것이 모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 시도교육청에서 동학농민혁명 사 보조교재 편찬 등을 추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문병학 우리나라 근대사의 분수령인 동학농민혁명은 전라북도 지역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따라서 관련 유적지도 많습니다. 전라북도 전역에 유적지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들 유적지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승환 전북의 초입인 삼례부터 시작하여 전북지역 곳곳에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자주 만나는 친구’라는 말이 있지요? 아이들이 자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를 답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사를 통해서 해당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아이들에게 유적지와 그 의미를 알려주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동학농민혁명 보조교재가 일정하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나면 한 개인의 역사성과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전과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시각은 올바른 삶과 성숙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해 가는데 큰 원동력이 되리라 봅니다.

문병학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동학농민혁명 당시 선열들께서 흘렸던 피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흘렸던 피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젖줄이지요. 이처럼 뜻 깊은 역사가 다름 아닌 우리 전북지역에서 싹터서 꽃을 피우고, 민주주의라는 열매를 맺었다는 점에 대해 우리 청소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념재단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이승원의 증손자 이원하

Q 이원하 선생님 안녕하세요!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반갑습니다. 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이 승자 원자, 이승원의 증손자 이원하입니다. 1994년 동학농민혁명 1백주년 기념사업이 추진되던 무렵부터 공주에서 20여년 가까이 갑오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에 몸담아왔습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Q 증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는데, 그 당시 활동하신 지역과 활동하신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A 활동지역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증조부께서 당시에 계룡면 화은리에서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공주지역에서 활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동학농민혁명 때 증조부님께서 참여하셨다는 얘기는 주로 어떤 경로 혹은 어떤 분께 들으셨는지요?

A 증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제 아버지로부터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살았던 계룡면 화은리 571번지 바로 아랫집에 ‘불들이 아저씨’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이후에 대전으로 이주) 그 불들이 아저씨가 “이승원 증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가 동학농민군이 패배한 후 ‘오씨네’에서 숨어 지내다가 관군에 붙잡혀 돌아가셨다.”라고 아버지께 말을 해줘서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아버지께서 제게 해주셔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제 누나(이길하 57년생)는 1975년경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이상필 1890년생)가 살아계시던 때, 누나가 열 몇 살 때 할아버지께서 증손녀인 누나에게 증조할아버지께서 혁명에 참여하셨다는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Q 증조부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증조부님에 관한 일화나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으면 해주십시오.

A 증조할아버지에 대한 소상한 얘기는 거의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다보니... 앞서 얘기했듯이 아버지가 ‘불들이 아저씨’에게 들은 얘기, 누나가 할아버지에게 들은 얘기 외에는 거의 전해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동학농민혁명이 반란사건으로 치부되어 철저하게 단절된 결과이겠지요.

Q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로 인해 집안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A 그렇게 피해를 입은 건 없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자기 자식인 아버지에게조차 참여사실을 말하지 않아서 앞집의 ‘불들이 아저씨’에게 얘기를 전해들을 정도였음을 미루어봤을 때, 반란사건으로 매도당하는 시대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참여자 후손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지 않나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후손들이 당했을 고통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Q 증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것이 확인되어 특별법에 의해 유족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자 후손으로서 감회가 남다를 텐데, 이점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증조부께서 당시 민의(民意)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은 물론이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 증조할아버지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목숨 기꺼이 바친 갑오선열들의 그 숭고한 정신에 대한 긍지이자 자부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군에 대하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함께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아직도 사람들은 너무나 무관심하거든요.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념사업단체 관계자들도 20~30년간 많은 애를 쓰고 있지요. 이 점에 대해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전 국민이 다함께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역사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념재단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는 사업에 더욱 힘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Q 현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체인 사단법인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직을 맡아 갑오선열들의 구국애민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증조부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을 알고 우금티기념사업회 활동을 시작하셨는지요?

A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공주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참여한 것은 시민운동 차원에서 참여했습니다. 증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알게 된 것은 특별법 이후의 일입니다. 우금티기념사업회에서 공주 정선원 선생님 등과 기념사업을 함께 추진했었는데, 그 무렵 정선원 선생님이 공주지역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채록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아버지께서 증조할아버지의 혁명 참여 사실을 말씀하셨고, 이후 사료 등을 찾아 유족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증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Q 기념재단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고자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념재단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A 한국 근현대 민족민주운동의 시발점이었던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국민들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특히 동학농민혁명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초석이자 민주주의 시원을 열어놓았다는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확산시키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A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현안 및 사안들을 두고 싸우는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 정신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개인 혹은 단체 등이 각자 자기 입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갑오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대승적으로 뜻과 힘을 모아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선부르게 다른 사람, 다른 단체의 뜻을 왜곡하여 결론내기 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더 좋은 결과에 이르기 위한 진행과정을 좀 더 아름답게 꾸려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단체로는 전국유족회를 비롯하여 전국 각 지역에 30여개의 기념사업단체가 있고, 천도교, 각급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겠지만 기념재단이 사명감을 가지고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의 여러 단체나 기관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서 화합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창구역할을 잘 수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라북도, 임실지역 유적지를 찾아서

문병학 | 기념재단 기념사업부장



이번 호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맥락을 잘 보여주는 기념시설물이 건립·설치된 전라북도 임실군 지역의 유적지를 돌아보았다.

동학농민혁명의 현재적 의의를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공주우금치에서 일제의 근대적인 신무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쓰러져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만민평등과 구국애민정신의 표상인 갑오선열의 숭고한 정신은 을미년 항일의병, 3.1운동, 4.19혁명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기틀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 같은 역사적 맥락을 잘 보여주는 삼대혁명기념비(동학농민혁명·기미3.1운동·무인멸애운동)가 임실군 쌍암면에 조성되어 있다.

이밖에도 임실군 지역에는 김개남의 외가(外家)이자 처가(妻家)였던 청웅면 향교리, 백산봉기시기 대접주 최봉성 휘하 농민군이 봉기했던 지천리봉기지, 동학 포교시기와 동학농민혁명 제2차 봉기시기 해월 최시형이 머물렀던 제자 허선(許善)의 집터, 임실지역 동학 지도자였던 김영원이 후학을 양성하고자 설립한 삼요정(三樂亭), 김영원의 제자로 농민혁명과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1인으로 참여한 박준승(朴準承) 생가, 김개남 장군이 남원성에 유진(留陣)할 때 기도처로 활용했다는 성수산(聖壽山)의 상이암(上耳庵) 등의 유적지가 있다.

임실지역 동학의 전파는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다. 『전도교임실교사』 기록에 따르면 1873년 3월 최시형이 청웅면 새목터(烏項里)의 허선(許善)의 집에 왔을 때 최봉성(崔鳳成)이 입도했다는 기록이 보이지만 이 무렵 해월 최시형은 ‘이필제난’(1871, 경북 영해)의 여파로 강원도 정선에 피신해있던 때라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임실지역에 동학이 전파된 시기는 1889~91년 사이로 잡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은 1889년 최봉성과 그의 아들 최승우·김영원·김홍기·이병춘·이종현·엄민문·이종며·조석걸·성덕화, 1890~1891년 김춘성·이종근·박태준 등이 입도했다고 기록한 『전도교창건록』 『전도교회사월보』 「남원군 종리원사」 「순교약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원·임실지역 동학교도가 급증한 것은 전라도 여타의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1892~93년 교조신원운동 단계로 보인다.

갑오동학혁명 기념비

|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17-5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 |

이 기념비는 1983년 임실지역 유족회원 및 천도교인들이 각계의 지원과 후원을 받아 건립하였다. 이른바 '삼대혁명기념비'로 불리기도 하는 이곳은 운암초등학교 정문 옆에 자리하고 있는데, 좌측에 기미삼일운동기념비(己未三一運動紀念碑), 중앙에 갑오동학혁명기념비(甲午東學革命紀念碑), 우측에 무인멸왜운동기념비(戊寅滅倭運動紀念碑) 세 개가 나란히 서 있다.



을 주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경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다가 8월 26일 옥사(獄死)하였다.

성발마을

|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향교리 578-1 일대 |

이곳은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김개남의 외가이자 처가마을로 김개남이 청년시절에 혼장을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김개남은 19세 때인 1871년 결혼했으나 같은 해에 아내와 사별, 이듬해 성발마을 전주이씨와 재혼하였다.

성발마을 뒷산능선이 운암과 청웅면의 경계인데, 김개남은 이 재를 넘어 운암과 태인을 왕래했다고 한다. 김개남과의 연고로 청웅면 사람들은 1894년 3월 16일 청웅면 향교리에 모여서 3월 18일경 산외면 등을 거쳐 고부 쪽으로 나갔다고 한다.



삼요정 (三樂亭)

|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선거리 713-6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 |

삼요정은 1883년 설립되었으나 설립자 김영원(金榮遠, 1853~1919)이 3.1 독립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옥중 순국한 뒤 1921년 일제가 독립운동발상지라는 이유로 강제로 철거했다. 이후 2002년 임실군과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 현재의 위치에 재건, 2008년 10월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시설로 지정하였다.

김영원은 1889년 동학에 입도한 후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 임실지역 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1894년 11월 14~15일 벌어진 남원방아치 전투, 관음치전투, 여원치전투 그리고 28일 남원성전투에서 운봉 박봉양의 민보군에게 패한 뒤 최승우 대접주 등과 순창 회문산으로 피신하여 살아날 수 있었다. 이후 1905년 갑진개화운동과 3.1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3.1운동 때는 고령인 탓에 문하생이던 박준승과 양한묵 두 제자를 민족대표로 천거하고, 자신은 고향 임실로 내려와 만세운동

지천리(芝川里) 붕기 터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지천리 329 일대]

동학농민군이 1894년 3월 20일 무장포고문을 공포하고 23일 고부관아를 재점령하였다. 이곳에서 사흘을 머문 농민군은 26일경 백산으로 이동하여 이른바 백산대회를 열었다. 이 무렵 임실지역 농민군이 청웅면 지천리에 모여 붕기했다는 사실이 후손들의 증언과 역사학계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청웅면 속한 지천리는 1965년 운암댐이 건설되면서 수몰되어 마을이 사라졌고, 현재는 마을의 높은 지대 일부만 남아있다.



허선(許善)의 집터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조항마을) 1093]

동학 2세 교주 최시형이 1874년 무렵 허선의 집에 머물며 포교활동을 하였다.『임실교사』 또, 1894년 9월 18일 충동원령 이후 우금치전투 등 격전이 벌어지는 시기에도 이곳에 머물면서 상황을 주시하였다. 우금치전투에서 패배한 동학농민군은 11월 25일 원평구미란과 27일 태인 성황산 등지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하였다. 태인전투 패배로 주력군을 해산하고, 전봉준은 입암산성을 거쳐 순창 피노리로 들어갔으며, 손병희와 북점 농민군은 임실 조항리 허선의 집으로 찾아가 최시형과 합류하여 장수와 무주를 거쳐 충청도로 올라갔다.



상이암 (上耳菴)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성수리 산 85]

상이암은 “고려를 건국한 왕건과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103일 동안 상이암에서 기도를 하고 왕이 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한국의 발견』, 뿌리깊은나무, 전라북도판)고 전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김개남도 상이암을 찾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매천 황현은 『오하기문』에 “7월 하순, 정예 기마병 백여 명을 데리고 임실 산중으로 들어가 상여암(上與菴)에서 더위를 피했다”고 적고 있다. 시기적으로 전봉준과 전라감사 김학진 담판으로 관민상화 원칙에 따라 집강소를 설치하고 치안질서를 바로잡기로 합의한 이후인데, 남원성에 유진(留陣)하던 김개남이 상이암을 찾았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 “일설에 의하면 김개남은 김씨가 왕이 되는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려 하였고, 이미 대신 이하 관료들을 임명해 두었다는 소문이 있었다”(대판조일신문)는 기록이 전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더욱이나 의미심장하다.



참고자료

박맹수, 『최시형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1996.
이진영, 『동학농민전쟁과 전라도 태인현의 재지사족』,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1996.
박준성, 『작은 책』, 『왕이 되려고 기도하던 상이암과 농민군 지도자 김개남』, 201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편,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물 현황조사』, 2011.

기념관 방문단체

인내천.
사람이 하늘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 11. 5. p
문재인



1	2
	3

- ① 5월 9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기념재단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 '기념공원 조성사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문재인 대표는 방명록에 '인내천, 사람이 하늘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라는 글귀를 남겼다.
- ② 4월 23일, 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 임원 및 회원 34명 기념관을 방문했다. 이 사업회는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순국하신 이회영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 ③ 3월 26일, 부안 우덕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 등 41명 기념관 방문

4	5
6	7

- ④ 3월 28일, 전·현직 언론인 모임 35명 기념관 방문.
- ⑤ 4월 1일,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57명 기념관 방문.
- ⑥ 4월 2일, 아주대학교 사학과 62명 기념관 방문.
- ⑦ 4월 5일, 임실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 75명 기념관 방문.

기념관 방문단체



8	9	11
10		12

- ⑧ 4월 19일, 전라북도 세무서장단 기념관 방문.
- ⑨ 4월 6일, 부안여자중학교 학생 및 교사 33명 기념관 방문.
- ⑩ 4월 6일, 정읍예비군훈련장 예비군 75명 기념관 방문.
- ⑪ 4월 7일, 김영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기념관 방문.
- ⑫ 4월 9일, 전주여자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42명 기념관 방문.

기념관 방문단체



13	14
15	16

- ⑬ 4월 5일, 19일 정읍 크레용유치원 어린이 85명 기념관 방문. 기념관 내 어린이 전시실을 관람한 후 녹두학당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 ⑭ 4월 12일, 정읍 새싹유치원 어린이 20명 기념관 방문. 기념관 내 어린이 전시실을 관람한 후 녹두학당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 ⑮ 5월 3일, 정읍 연지유치원 어린이 40명 기념관 방문하여 어린이 전시실을 관람하였다.
- ⑯ 4월 20일, 부안제일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40명 기념관 방문.

기념관 방문단체



17	18	19
20		21

- ⑰ 4월 20일, 임실 관촌초등학교 학생 34명 기념관 방문하여 전시실을 관람한 후 '동학농민군 깃발 만들기', '녹두씨앗심기' 등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 ⑱ 4월 21일, 정읍 도학초등학교 학생 13명 기념관 방문하여 전시실 관람한 후 '사발통문 만들기', '동학농민군 깃발 만들기' 등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 ⑲ 4월 28일, 군산 문화초등학교 학생 32명 기념관 방문하여 전시실을 관람한 후 '사발통문 만들기', '동학농민군 깃발 만들기' 등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 ⑳ 5월 10일, 정읍초등학교 학생 62명 기념관 방문하여 전시실을 관람한 후 '동학농민혁명 이미지 페이스페인팅'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 ㉑ 5월 25일, 성문박학교 학생과 교사 27명 기념관을 방문하여 '동학농민군 깃발 만들기', '녹두씨앗심기' 등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기념관 방문단체



22	23
24	25

- ㉒ 4월 29일, 진안 마령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 66명 기념관 방문.
- ㉓ 4월 30일, 법원공무원노동조합 회원 및 가족 52명 기념관 방문.
- ㉔ 5월 4일, 보은정보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46명 기념관 방문.
- ㉕ 5월 17일, 무궁수훈자회유족회 34명 기념관 방문.

기념관 방문단체



26	27
28	29

- ②⑥ 4월 8일 광주광역시 광덕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40명 기념관 방문.
- ②⑦ 4월 27일 청주 서경중학교 학생 및 교사 200명 기념관 방문.
- ②⑧ 5월 2일 부산 이사벨중학교 학생 및 교사 183명 기념관 방문.
- ②⑨ 5월 10일 신태인중학교 학생 및 교사 41명 기념관 방문.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를 찾아서

일 시_ 2016년 5월 30일

장 소_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사무실

대 담_ 이갑상 이사장 | 신함식 사무처장 | 문병학 기념재단 기념사업부장

문병학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추진하시느라 많이 바쁘셨지요? 올해 기념제는 5월 7일(토)과 8일(일) 이틀간 성대하게 펼쳐졌는데, 먼저 행사를 마치고 난 소감을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세요.

이갑상

네, 어서 오세요.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이갑상입니다. 5월이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업회 임원, 회원 등 전체 관계자가 아주 바쁘게 보냅니다. 올해에도 정읍시와 정읍시의회, 그리고 기념재단 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신 것에 힘입어 기념제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49회를 맞은 올해 기념제는 동학농





이갑상 이사장

민혁명 정신을 전국에 알리고 그 인식의 폭을 넓히는데 의의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매년 펼쳐지는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는 무명 동학농민군에 대한 위령제로 시작합니다. 위령제는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사발 통문 작성지인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에 건립한 ‘무명동학농민군 위령탑’에서 올립니다. 이 위령탑은 정신대 할머니들을 상징하는 조각물인 ‘평화의 소녀상’을 조각한 김운성 작가의 초기작품으로 무명 동학농민군을 추모하는 조형물로는 전국 최초의 시설물이지요.

우리사업회가 주최하고 정읍시농민회가 주관하여 위령제를 올린 다음 황토현전승지에 자리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교육관으로 이동하여 [제49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거행하는데 올해 동학농민혁명 대상에는 효암학원 채현국 이사장이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또[전국 황토현농악경연대회], [대한민국 조선세뭇경연대회], [전국 청소년 토론대회], [전국 역사퀴즈대회], [신(新)만민공동회] 등이 진행되었지요. 신(新)만민공동회는 전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토론할 의제를 각각 제기하고, 그 의제를 하나로 합축하는 토론회로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제 대미를 마무리하는 행사로는 황토현전승지에 자리한 구민사(사당)에 모셔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20분께 올리는 추모 제례입니다. 갑오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넋을 위무하기 위한 이 제례를 매년 정읍시장님께서 함께해주는데 참 고마운 일이지요.

내년은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50주년, 반세기를 맞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성대한 기념제가 펼쳐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문병학

정읍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회가 설립되어 활동한 것이 올해로 벌써 50년째이지요? 전국 최초의 설립된 기념사업단체는 1962년 6월 설립된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협회](회장 김상기)였고, 두 번째로 설립된 기념사업 단체가 [정읍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1967.12.)이지요? 암울했던 시기에 정읍지역에서 민간의 기념사업단체가 설립되어 1968년 봄부터 ‘갑오동학기념문화제’를 추진, 49회째를 이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기억, 그리고 긍지와 자부심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갑상

저는 1970년대 중, 고등학생 때부터 기념문화제에 참석했습니다. 종이 찰흙으로 탈을 만들어 쓰고 기념제에 참가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복 바지저고리를 입고 홀수 반은 농민군, 짝수 반은 관군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진행했는데, 서로 관군은 안 하려

고 했어요. 저는 농민군 반이었습니다.(웃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만국유람단이라고 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동학제를 참관하는 것처럼 꾸며서 가장행렬을 했습니다. 그때 코를 크게 붙여서 외국인 분장을 하고 거리행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볼거리가 많지 않던 당시에는 이 문화제가 정읍시 인근 각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었지요.

신함식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때는 1980년대 초였는데, 그때는 기념사업회가 신군부정권에 의해 강제로 해산을 당해서 관에서 행사를 주관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신태인 ‘왕신여고’에서 체육대회 형태로 형식적으로 추진된 탓에 선배들처럼 기념제와 관련한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기념제가 축소되어 관중도 적고, 민간단체가 강제로 해체당한 뒤라서 주민 반응도 냉랭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하필 제 청소년기에 단체가 해산되어 기념제가 관으로 넘어가 반쪽으로 축소된 것이 아쉬울 따름이지요.

문병학

동학농민혁명 1백주년을 앞둔 1993년 12월 12일 전국에서 창립, 활동을 시작한 11개 단체가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이하 동단협)를 결성했지요. 그때 제가 동단협 사무간사였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한데 <고부봉기 역사맞이>, <백주년 기념대회>, <백주년 기념 학술대회>, <공주우금치 영령추모예술제> 이렇게 네 축으로 백주년 기념사업을 기획해서 추진했지요. 그 때 동단협에는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가 함께하여 백주년 기념사업의 첫 번째 사업으로 2월 26일부터 27일 정읍시 일원에서 ‘고부봉기 역사맞이’가 아주 성대하게 열렸지요. 그때 역사맞이 굿을 하면서 이사장님과 사무처장님도 현지에서 아주 고생했었는데, 기억을 더듬어 감회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갑상

백주년을 알리는 첫 번째 기념행사를 동학농민혁명 첫 시작점인 고부농민봉기에 맞춰 역사맞이 굿을 진행했지요. 당시 임진택 선생이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부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민예총 산하 ‘백주년 특별위원회’를 총괄해서 전국의 민족예술인들이 아주 총동원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이 잘 되려고 그랬던지 당시 정읍 군수가 임진택 부이사장의 친형인 임성택 군수였어요. 이런저런 여건들이 맞아떨어져 ‘고부봉기 역사맞이 굿’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큰 힘이 되었지요.

백주년 당시 정읍군과 정주시가 따로 있을 때라서 정읍지역에는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민간단체)와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정읍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정주시) 이렇게 3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중 민간단체인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가 동단협에 소속되어 ‘고부봉기 역사맞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지요. 그 행사를 잘 마치고 1995년에 세 단체가 통합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문병학

정읍지역에는 일찍부터 기념사업이 추진되어 유적지 정비가 다른 시도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계승사업회 입장에서 고부관아 터라든가 하는 부분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터인데, 혹여 고부관아 복원 등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갑상

정읍지역의 유적지는 비교적 정비가 잘 되어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만 유적의 흔적이 훼손되고, 사라진 곳도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고부관아가 있었던 자리에는 초등학교가 들어서 있습니다. 고부군은 일제강점기 때 정읍·부안·고창군 등으로 각기 편입되었어요. 그래서 갑오년 당시에는 고부군 백산이었던 것이 지금은 부안군 백산면이지요. 몇 년 전에 옛 고부성 복원을 위한 ‘고부유적보존회’가 만들어졌지요. 고부관아 복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병학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 교육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승사업회에서 특별히 청소년 대상 선양사업에 힘을 쏟고 계시는데, 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갑상

저희 계승사업회에서는 청소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 중 20년째 시행하고 있는 <전봉준 역사캠프>가 있습니다. 처음엔 사업회 회원 자녀들만 참여했는데, 지금은 참가자가 넘쳐서 학교당 5명씩 참여를 제한할 정도입니다. 올해도 7월 28일경, 남원 운봉지역에서 역사 강연과 그 지역 유적지 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고 사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는 현재와 깊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 교육은 아주 중요합니다. 전봉준역사캠프를 거쳐 간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대에 다녀와서 역사캠프의 교사로 자원봉사를 나옵니다.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을 보면 매우 기쁘고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 다른 청소년 프로그램으로는 교육청과 함께 <역사 퀴즈대회>가 있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이 대회는 올해에도 강원도,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30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첫날 유적지 답사를 하고 가족과 함께 캠프에서 숙영한 다음 둘째 날 퀴즈대회를 진행합니다. 이밖에도 <전국 청소년 토론대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200여 팀이 참가하여 예선전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이렇듯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른 지역 기념사업회에도 적극적으로 확산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학

정읍지역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추진하면서 어떤 점들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느

끼시는지요. 또한 전국에는 정신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이 서로 힘을 모아 기념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켜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갑상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최초 전승지로서 동학농민혁명 성지입니다. 저는 정신선양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순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이 활성화된 것에는 백주년을 준비하고 추진했던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이 짐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때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 의지하면서 정신선양사업을 추진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인생의 좌표로 삼는 글귀가 “桐千年老恒藏曲(동천년노항장곡) -오동은 천년이 지나도 제 곡조를 간직하고, 梅日生寒不梅香(매일생한불매향) -매화는 일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는 팔지 않는다.”는 상촌 신희 선생의 시조입니다. 기념사업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시조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문병학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신함식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는 1967년부터 진정성을 가지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에 힘써왔습니다. 그래서 정읍지역 주민들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른데, 이런 노력과 현실적인 주민들의 정서를 존중하면서 재단과 각 지역의 여러 기념사업 단체들이 힘을 모아나갈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국 각 지역의 기념사업 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등을 재단이 잘 수행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큼니다.

이갑상

우리가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준비했던 그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다 같이 손잡고 화합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나 학문적인 검증이나 토론은 치열해야 합니다. 재단도 각 관련단체들도 모두 하나가 되어 함께 해나간다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데 각 지역의 사업에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함식 사무처장

지역단체 포커스

| 제122주년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대회

[제122주년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대회]가 4월 23일 부안군 백산면 백산고등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원철 백산봉기기념사업회 회장, 이정희 천도교 교령, 김종규 부안군수 등 1,5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백산은 고부농민봉기 때 고부 민군(民軍)이 진지를 구축했던 곳이자 1894년 3월 20일(음력) 무장에서 포고문을 공포하고 복상한 동학농민군이 고부관아를 재점령한 후, 26일경 이곳에서 대회를 열고 군대로서의 대오를 확대·재편한 역사적인 곳이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백산봉기기념사업회는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때부터 매년 기념대회를 추진해오고 있다.



| 전봉준 장군 순국 제121주기 추모제

지난 4월 24일 정읍시 이평면 조소리 전봉준 장군 단비에서 [전봉준 장군 순국 제121주기 추모제]가 거행되었다. (사)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는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사상을 전국화·세계화·미래화를 추구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추모제에는 이기곤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이석연 제28대 대한민국법제처장, 유성엽 국회의원, 김생기 정읍시장 등 관련단체 및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동학농민혁명 최고 지도자 전봉준 장군을 추모하고 그 뜻을 되새겼다.



| 제122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

[동학농민혁명 제122주년 무장기포기념제]가 4월 25일 고창군 공음면 무장기포지 등지에서 열렸다. 동학농민혁명 무장포고문 낭독, 진격로 걷기, 선운사 미륵보살 비기탈취, 무장읍성 함락 재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우정 고창군수, 유성엽 국회의원, 이기곤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이범창 천도교 종무원장 등 내외귀빈과 고창군민 1,0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추진되었다. 한편, 이 행사에서 신용하 전 서울대학교 교수 [제9회 녹두대상]을 수상하였다.



| 제49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지난 5월 7~8일 양일간 [제49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무명동학농민혁명군위령탑(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 동학농민혁명교육관·기념관(정읍시 덕천면) 일원에서 진행된 기념제에는 김일재 전북도행정부지사, 김생기 정읍시장, 유성엽 국회의원, 이승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이기곤 전국유족회 회장, 이범창 천도교 중앙총부 종무원장 등 관련단체 임원 및 관계자,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하였다. 1968년 개최된 제1회 갑오동학혁명기념제를 시작으로 올해 49회째는 맞은 이 기념제는 [동학농민혁명 대상] 시상식, 무명동학농민군위령제, 신(新)만민공동회, 구민사 갑오선열위패봉안례, 전국청소년토론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올해 [동학농민혁명 대상]은 호암학원 채현국 이사장이 수상하였다.



지역단체 포커스

| 제122주년 동학혁명 황토현 전승기념식

[제122주년 동학혁명 황토현 전승기념식]이 5월 11일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 갑오동학혁명 기념탑 앞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이승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이정희 천도교 교령, 김생기 정읍시장, 우천규 정읍시의회의장, 이갑상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등 많은 참가자로 성황을 이루었다.



| 제122주년 장성황룡 동학농민군 승전 기념식

5월 27일 장성 황룡 동학농민군승전기념공원에서는 [제122주년 장성황룡 동학농민군 승전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은 1994년 이후 광주·전남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이상식)에서 매년 추진해오다가 올해는 천도교중앙총부, 장성군농민회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이기곤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을 비롯하여 이정희 천도교 교령, 유두석 장성군수, 장성군 농민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동학농민군 승전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기리었다.



| 제122주년 동학농민군 전주성 함락 및 전주화약 기념주간

(사)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1894년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동학농민군 전주성 함락 및 전주화약 기념주간] 행사를 펼쳤다. 기념식은 전주한옥마을 내 전주소리문화관에서 제122주년 기념식, 역사특강(동학농민혁명과 전주에 대한 역사적 의미), 폐정개혁안 낭독, 전주성 함락 기념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하였다. 기념주간에는 고등학생 백일장, 자료사진 및 학생작품 전시회, 유적지 탐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추진되었다.



| 광주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준공식

지난 6월 3일 광주광역시 남구 이장동 216번지에서 [광주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준공식이 열렸다. 준공식에는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관련단체 임원을 비롯하여 최영호 광주광역시남구청장을 비롯하여 해당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고영두씨 집안에서 기념공원 조성부지 토지를 기부하여 완공된 이 공원은 상징 기념탑, 녹지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단체 포커스

| 찾아가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대회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는 6월 11일 전주한옥마을 소담원에서 [찾아가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이기곤 전국유족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최금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무처장의 기념재단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 이성수 소설가의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효과적인 선양방안, 이태룡 박사의 동학농민혁명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강연 등으로 이루어졌다.



| 제122주년 동학농민혁명 전주화약기념제

6월 11일 동학혁명기념관과 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는 [제122주년 동학농민혁명 전주화약기념제]를 전주한옥마을 안에 위치한 동학혁명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하였다. 전주시, 천도교중앙총부 후원으로 열린 이번 기념제에는 이기곤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회장, 이범창 천도교중앙총부 종무원장, 김승수 전주시장, 이석 조선왕조 황손, 천도교 교인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기념식이 끝난 이후에는 전북대학교 사범대 사물놀이 동아리의 문화공연이 펼쳐졌고, 역사특강으로 채길순 명지대 문예창작과 교수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과 전주성 전투'가 이어졌다.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일(요일)	언론사명	기 사 제 목
4월15일(금)	대전일보	동학농민혁명아산기념사업회, 오늘 이이화 역사학자 강연
4월18일(월)	뉴스1	신용하 전 서울대 교수 '제9회 녹두대상'에 선정
4월18일(월)	전북일보	고창군, 제9회 녹두대상 수상자에 신용하씨 선정
4월19일(화)	아시아뉴스통신	보은서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위한 제14회 동학제 열려
4월19일(화)	충북일보	보은동학제, 오는 22~23 열린다
4월19일(화)	동양일보	오는 22~23일, 제14회 보은동학제 열려
4월22일(금)	뉴스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에 이승우 군장대 총장
4월22일(금)	연합뉴스	'동학혁명 122주년'...정읍·고창·부안서 기념제
4월22일(금)	뉴스1	정읍서 5월 7~8일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제
4월24일(일)	뉴시스	전봉준 장군 순국 제121주기 추모제
4월24일(일)	전라일보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제 내달7일부터 개최
4월24일(일)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 부안 백산봉기 기념대회
4월25일(월)	광주일보	정읍시·고창군·부안군 동학농민혁명 122주년 행사 다채
4월25일(월)	아시아경제	고창군, 무장기포기념제·무장읍성축제 개최
4월25일(월)	아시아경제	제6회 동학농민혁명 대상에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 선정
4월25일(월)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 제122주년 무장기포기념제
4월25일(월)	전라일보	고창에서 무장기포제-무장읍성축제 열려
4월25일(월)	뉴시스	동학농민혁명 고창 무장기포 기념제 개최
4월26일(화)	NSP통신	장흥군, 제12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개최
4월27일(수)	무등일보	장흥서 동학농민혁명 제122주년 기념식 개최
4월29일(금)	뉴스1	[인터뷰] 이승우 제3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4월30일(토)	브레이크뉴스	동학농민운동 백산봉기 재연된다!
5월2일(월)	연합뉴스	'농민군 함성 재연'...정읍시 7~8일 동학혁명기념제
5월2일(월)	아시아뉴스통신	'2016 동학농민혁명 구미 학술대회'개최
5월2일(월)	전북일보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제 7·8일 정읍서 개최
5월6일(금)	뉴시스	제4회 부안마실축제,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재연 퍼포먼스
5월8일(일)	전북도민일보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제 행사 다채
5월11일(수)	일요신문	동학농민군 첫 승리, 정읍 황토현서 전승 기념식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일(요일)	언론사명	기 사 제 목
5월11일(수)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 황토현 전승 기념식, 혁명군 훈 기려
5월12일(목)	충청매일	음성 동학혁명군 활동 밝힌다
5월20일(금)	아주경제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탐방
5월20일(금)	경남도민일보	산청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21일 시천면 영남기념비서
5월22일(일)	전북일보	이승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신임 이사장 “사람이 우선”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에 온 힘”
5월24일(화)	새전북신문	동학농민혁명 122주년, 전주서 다채로운 행사
5월25일(수)	경향신문	동학농민혁명 122주년 행사 전주서 31일부터 열린다
5월26일(목)	연합뉴스	‘동학농민혁명 바로 보기’...동학혁명재단 교원연수 시행
5월26일(목)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원직무연수 참가자 모집
5월30일(월)	뉴스웨이	122주년 장성황룡 동학농민군 승전기념식 개최
5월30일(월)	NSP통신	장성군 황룡 동학농민군 122주년 승전기념식 성료
5월30일(월)	연합뉴스	동학군 전주입성 122주년 ‘역사·가치 재조명’
5월30일(월)	한겨레	전주 동학농민혁명 122돌맞이 31일부터
5월30일(월)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군 전주입성 122주년 기념행사
5월31일(화)	국제뉴스	보은군서 보은취회 ‘사람이 하늘이니...’ 열린다
5월31일(화)	충북일보	보은취회, ‘사람이 하늘이니’ 개최
6월1일(수)	대전일보	보은취회 3-6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6월3일(금)	아시아경제	광주 남구에 동학농민혁명 재조명한 ‘기념공원’들어서
6월3일(금)	뉴시스	‘동학농민혁명사 한눈에’ 광주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준공
6월4일(토)	이뉴스투데이	광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기념탑 제막
6월5일(일)	뉴스메이커	남구 이장동에 ‘광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준공
6월6일(월)	충북일보	“동학 북접군의 출발지와 종착지 모두 음성”
6월9일(목)	새전북신문	11일 ‘2016년 동학농민혁명 대동제’
6월12일(일)	전라일보	동학농민혁명 전주화약기념제
6월12일(일)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 특별전 ‘반란의 역사를 넘어, 세계의 역사로’
6월13일(월)	경향신문	동학농민혁명 14일부터 기념관서 열린다
6월14일(화)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 기념보다 계승이 중요하다

전봉준 혁명의 기록



[...유력한 일본인이 전봉준에게 접근해 “그대의 죄상은 조선국 법률에 비추어보면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거나, 우리 일본 법률로 따져볼 것 같으면 상당한 국사범이라, 사형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할 수도 있나니 그대는 마땅히 일본인 변호사에게 위탁해 재판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본 정부에 양해를 얻어 살 길을 찾음이 좋지 아니하겠는가?”라고 권고했다. 이에 전봉준은 “일본은 곧 나의 적국이다. 내 구차한 생명을 위해 적국에 살 길을 찾음은 본의가 아니다”라며 한마디로 거절했다.] - 『전봉준, 혁명의 기록』, 2014, 생각정원, 224쪽.

지은이 소개 **이이화** 李離和

1937년 출생. 1986년 <역사문제연구소> 설립 이후 동학농민혁명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전국 각 지역의 기념사업단체 창립의 산파역할 수행에 힘을 기울였으며, 다수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저서 출판을 통해 대중적인 역사인식 확장에 기여하였다. 저서로는 『파랑새는 산을 넘고』, 『전봉준』, 『대접주 김인배, 동학농민혁명 선두에 서다』, 『동학농민전쟁 인물열전』, 『허균의 생각』, 『한국의 파벌』, 『한국사 이야기』, 『전22권』, 『인물로 읽는 한국사』, 『전10권』 등 다수가 있으며, 심산상(1993), 단재상(2001), 임창순학술상(2006), 녹두대상(2008) 등을 수상했다.